

새천년 첫휴일 도내 '비나 눈'

경북동해안 해맞이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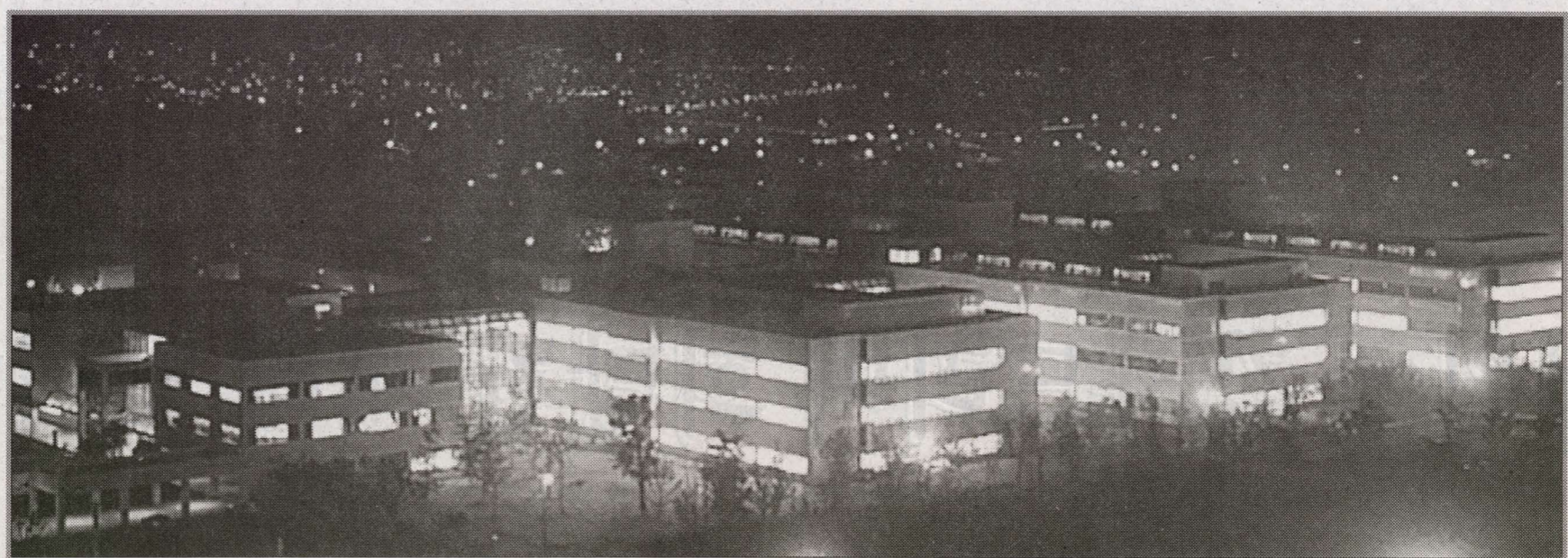
새 천년 첫 주말 포항을 비롯한 경북도내 전역에 오후부터 비나 눈이 내려 새로운 천년의 시작을 축하해 줄 것으로 보인다.

31일 포항기상대가 발표한 기상예보에 따르면 새 천년 첫날 경북지역은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오후부터 흐려지기 시작해 이날 밤이나 2일 오전까지 비나 눈이 내릴 전망이다.

그러나 2일 예상되는 강수량은 현재 도내 전역에 발효중인 건조주의보를 해제시킬 수 있을 만한 양은 되지 못할 것으로 보이며, 해상의 파도는 1-2.5m로 다소 높게 일겠다.

이에 따라 경북 동해안지역에서는 1일 아침 해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최저기온도 영상 2도내외로 전망돼 큰 추위는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포항기상대 관계자는 "1일 오후부터 기압골의 영향을 받게 되는 경북지방은 오후부터 차차 흐려져 2일째 한때 비나 눈이 내리겠으며, 5일째 다시 비나 눈이 내릴 전망"이라고 말했다. 한편 새 천년 첫 주에도 큰 추위는 없겠으나 5일을 전후해 눈-비가 내린 뒤 다소 추워질 것으로 보인다. **[이종욱기자]**



포항산과연-포항공대, 첨단 신기술 벨트라인 구축

밤낮없이 연구에 몰두하느라 불야성을 이룬 포항산과연 전경.

"새천년 과학한국 우리가 선도"

포항시 남구 지곡동에 자리잡은 포항산업과학연구원(RIST)과 포항공대가 맞는 새 천년의 태양은 특별하다.

특히 첨단 신기술 벨트라인을 구성, 수천건의 특허 출원으로 국제적인 주목을 받은지 오래.

특별한 아니라 세계가 놀랄만한 연구성과가 속속 터져나오면서 명실상부한 21세기 과학기술의 첨병으로 자리잡았다.

이때문에 리스트와 포항공대는 21세기를 이끌어갈 한국의 신지식 벨리로 급부상하면서 새천년을 여는 한반도 과학중심지로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국내 최대의 민간연구기관인 리스트는 박사 110명과 석사 145명, 연구원 255명 등 모두 492명의 연구인력이 포진한 명실상부한 '한국판 싱크탱크'.

이 안에 10여개의 금속 및 세라믹,

탄소재료 등 비금속 소재관련 제조업체인 벤처기업이 살아 숨쉬고 있어 유기적인 교류까지 활발하다.

올해 안에 10개의 벤처기업이 추가로 입주할 예정이어서 연구와 창업이 병행하는 성공사례를 기록하게

- 전기분해 적조 제거술
- 다이옥신 저감 촉매제
- 총돌 흡수 중앙분리대

됐다. 이곳의 금속관련 연구분야는 독보적일만큼 뛰어난 산업계가 실력을 인정하고 있다.

환경분야에서도 국내 최고의 연구능력을 갖추고 있다.

순फल을 만한 연구결과도 수두룩하다.

△국내 최초로 바닷물을 전기분해

해 적조를 제거하는 적조제거기술 △대형소각로와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이옥신을 획기적으로 저감시킬 수 있는 촉매개발 △국내민간연구기관 최초로 환경부로부터 다이옥신 공인분석 및 측정기관으로 선정

- 총 4,236건 특허 출원
- 에이즈 DNA백신 개발
- 식물 개화조절 유전자

△차량의 총돌 흡수력이 커 충돌시 전복과 같은 2차사고를 예방해 인명 피해를 획기적으로 감소시킨 철재중앙분리대 △재활용이 가능하고 주가 상승이 우수한 스티하우스와 스티빌라 개발 등 헤아릴 수 없이 많다.

리스트 설립 이후 12년 동안 4천 236건의 특허를 출원했다는 것만으로도 연구성과를 대변하고 있다. 수

행연구과제도 4천22건이나 된다.

이밖에 리스트는 국내 30여개 기업과 연구기관, 학교는 물론 선진연구기관의 협력을 위해 36개 외국 선진연구기관과 공동연구협력을 체결하는 등 2000년 신기술 창업과 개발의 최후병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미 세계적인 연구중심대학으로 자리잡은 포항공대 역시 눈부신 연구업적으로 과학한국을 이끌고 있다.

성영철 교수팀(생명과학과)이 개발에 성공한 에이즈 DNA 백신은 세계 과학계를 깜짝 놀라게 하는 쾌거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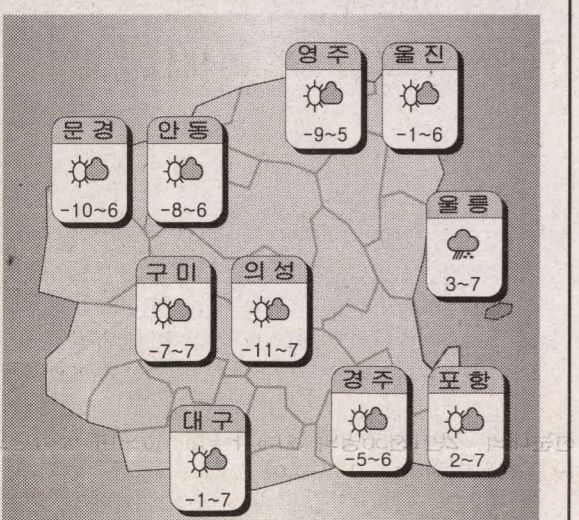
식물의 개화시기를 조절하는 유전자 발견 역시 지구촌에 제2의 녹색혁명을 가져올 역사적 사건으로 기록됐다.

리스트와 포항공대의 첨단 신기술 벨트라인은 새 천년의 과학한국을 선도할 지식단지로 부러움을 사고있다. **[곽성일기자]**

날씨 1월 1일 (토)

오후부터 차차 흐림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맑은 후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으며 낮기온은 4-7도의 분포를 보이겠다. 해상의 파도는 1.5-2.5m로 일겠다.



지역	기상	기온	눈/비율	해돋이 = 07:33	달몰림 = 02:21
포항	☁	2~7	30%	해질름 = 17:18	달짐 = 13:49
경주	☁	-5~6	30%	[포항] 만조 --- 07:07	
대구	☁	-1~7	10%	간조 14:11 18:34	
서울	☁	-3~4	10%	바다	
부산	☁	3~11	10%	동해중 북동-남동 8-13㎞ 1.5-2.5m	
대전	☁	-5~7	10%	동해남 8-13㎞ 1.5-2.5m	
청주	☁	-5~7	10%	서해중 * 6-12㎞ 1-2.5m	
강릉	☁	2~8	60%	서해남 * 7-12㎞ 1-2.5m	
춘천	☁	-4~4	10%	남해서 * 6-12㎞ 1-2.5m	
전주	☁	-2~8	10%	남해동 * 7-12㎞ 1-2m	
광주	☁	-1~9	10%		
제주	☁	4~15	10%		

신비의 섬 울릉도 대이여행사 282-0011

통일 신라시대 원지유적 확인 용황초등 부지 사적지로 지정

문화재청은 29일 통일신라시대 원지(園地, 정원내의 연못)유적으로 확인된 경주시 황성동 251-28번지와 용강동 181번지 일원의 용황초등학교 신축부지를 사적 제 419호로 지정했다.

문화재청은 이곳이 통일신라시대 연못지(840평)와 인공석축렬, 인공섬 2곳, 전돌지 2곳, 다리시설, 도로 배수로 시설로 추정되는 유구가 확인됨에 따라 통일신라시대 원지로 확인하고 사적지로 지정했다. **[경주=김성웅기자]**

밀출국기도 중국인 7명 검거

포항해경, 포항항 제8부두 야적장서

포항해양경찰서는 미국으로 밀출국 하기위해 포항항 제8부두 야적장에 숨어있던 중국인 7명을 30일 오후 9시께 출입국관리법위반혐의로 검거해 31일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 포항출장소에 신병을 인계했다.

이날 해경에 검거된 조행수씨(26·중국 복건성) 등 중국인 7명은 20, 30대 공장 노무자들로 한국을 경유해 미국에 가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지난 15일 중국 대련항을 출항, 20일 한국에 들어온 것으로 밝혀졌다. 해경은 이들이 한국에 도착해 병동탐자로 영전 등지를 돌아다니며 숨어지낸 것으로 밝혀내고 포항등에 알선책이 있을 것으로 판단, 관련자들을 추적수사하고 있다. **[장경식기자]**

연말연시 폭력사건 잇따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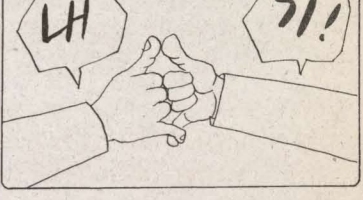
연말연시를 맞아 포항지역에 폭력 등 각종 사건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단군상 파괴 관련자 구속 촉구 단식농성

강창우 한문연고문등 4명

【영주=오공환기자】속보=대구경북 한문연운동연합팀 민족정신회복 시민운동협의회 관련자 4명이 30일부터 6일간 영주 남산초등학교 단군상을 파괴한 관련자 전원구속을 촉구하는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단식농성에는 박종보 대구경북 민족정신공동대표, 강창우 대구경북 한문연 고문, 류갑석 대구경북 민족정신단군문화회회장, 최길수 한문연영주지회 부회장등이 참여하고 있다. **[김중서기자]**



Food Line 단체급식(학교·관광·기업체) 식당위탁 운영

- 각종 도시락 주문
- 출장 뷔페
- 케더링 서비스

경북외식산업 ☎248-1761

백승태 만다리회관에 오다

매달리의 황재 배신자의 주인공 직접 연주하며 노래!! 정기연속 출연

오시는 손님께 백승태 테이프 "무료증정"

포항오거리 로타리

코너모질 : 274-1451 / 017-530-5155

새 천년 새해에도 福 많이 받으십시오

희망찬 새천년 포항시민을 위해 '준비된 호텔' '친절이 기억되는 호텔' 이 될것을 약속드립니다.

고객이 감동할때 까지... 고객인 감동할때 까지... 고객인 감동할때 까지... 고객인 감동할때 까지...

◀ 하루의 피곤함을 깨끗이 잊게하는 지하 1,2층 남녀 사우나

최상의 비즈니스맨을 위한 1층 커피숍, 로비라운지 ▶ 정성이 담긴 다양한 메뉴의 1층 한·양식당

◀ 고객을 위해 '준비된 호텔' 2층 대·소 연회장

고객의 품위를 한층 높여주는 3층 일식당 ▶

◀ 통기타 라이브와 위스키 페스티벌 11층 스카이라

사우나·헬스

일식전문점-회차

Sky Lounge Bar

HOTEL ROYAL CYGNUS
호텔로얄시그너스

대표전화 : 05621275-2000

▶ 시그너스 멤버십 클럽 [연회비₩140,000원 : 더욱 확대된 혜택과 특전부여] ◀